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미혼청년 및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윤 태 실

2020년 01월

# 미혼청년 및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민 주 흥

윤 태 실

이 논문을 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01월

윤태실의 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金 鳳 愛  
위 원 서 미 정  
위 원 閔 周 泓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년 01월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family  
values of unmarried young adults on  
marital intentions

- Focus on the Interaction of parental family  
values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

Tae-Shil Yun

(Supervised by professor JooHong Mi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20. 01.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Human Ecology & Welfa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국문초록 .....	VIII
<b>I. 서 론</b> .....	<b>1</b>
1. 연구배경 .....	1
2. 연구문제 .....	5
<b>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b> .....	<b>6</b>
1. 이론적 배경 .....	6
1) 결혼의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 .....	6
2) 부모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 .....	7
2. 선행연구 고찰 .....	8
1) 결혼의향 .....	8
2) 가족가치관 .....	10
3) 가족가치관과 결혼의향 .....	13
4)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	14
5) 세대 간 결속도와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	15
<b>III. 연구방법</b> .....	<b>16</b>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16
2. 변수의 구성 .....	17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17
2) 결혼의향 .....	17

3) 가족가치관 .....	17
4) 세대 간 결속도 .....	18
3. 분석방법 .....	19
<b>IV. 연구결과</b> .....	<b>20</b>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0
1) 미혼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0
2)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2
2.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	24
3. 미혼청년과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경향 .....	25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 유무의 차이 .....	25
5. 가족가치관, 세대 간 결속도, 결혼의향 간의 상관관계 .....	27
6.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9
1)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9
2)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6
<b>V. 결론 및 논의</b> .....	<b>40</b>
<b>참고문헌</b> .....	<b>45</b>
<b>Abstract</b>	
<b>부록</b> .....	<b>53</b>
1. 설문지 .....	54

## 표 목차

[표 1] 선행연구에서의 가족가치관 측정영역 .....	10
[표 2]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 .....	12
[표 3] 미혼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1
[표 4]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3
[표 5]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유무의 경향 .....	24
[표 6]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정도의 경향 .....	24
[표 7] 미혼청년과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경향 .....	25
[표 8] 미혼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 유무의 차이 ..	26
[표 9] 가족가치관, 세대 간 결속도 및 결혼의향 간의 상관관계 .....	28
[표 10]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유무에 미치는 영향 .....	31
[표 11] 성평등 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유무에 미치는 영향 .....	33
[표 12] 가족주의 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유무에 미치는 영향 .....	35
[표 13]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정도에 미치는 영향 .....	37
[표 15] 성평등 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정도에 미치는 영향 .....	38

[표 16] 가족주의 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정도에 미치는 영향  
..... 39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모형 ..... 5  
[그림2 ] 결혼의향 유무에 대한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적 결속의 상호작용 효과 ..... 30



<국문초록>

미혼청년 및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윤 태 실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지도교수 민 주 홍

최근 한국사회는 다양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미혼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유보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과 출산이 직접적 관계에 놓여있는 한국사회의 배경과,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대해 지적하였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저출산, 미혼 1인 가구의 정서적 유대감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혼청년들의 결혼의향이 어떠한지, 또한 결혼의향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미혼청년들의 결혼의향에 대한 가족가치관, 직업·경제적 상황, 심리적 요인 등의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대부분 미혼청년 당사자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았다. 최근 연구에서 부모의 지원 제공 여부, 동거여부, 정서적 측면의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 등 부모 관련 특성이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살펴봐야 함을 지적하였지만 실제로 이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하지만 모델링 이론(modeling theory)이나 정서사회화 이론(emotion socialization theory)을 바탕으로 부모의 가치관이 미혼청년의 태도나 가치관, 행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자녀의 가치관 및

행동은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반응하여 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접촉 빈도, 관계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혼청년 관련 특성 뿐 아니라 부모 관련 특성, 그 중에서도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대한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효과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 40세 이하의 미혼청년과 그의 부 혹은 모를 대상으로 2019년 09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566부(283쌍) 배부되었으며 부실 기재된 38부(19쌍)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396부(198쌍)의 설문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먼저,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결혼의향 유무와 결혼의향 정도로 나누었고, 결혼의향 유무는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결혼의향 정도는 10점을 만점으로 자신의 결혼의향에 가장 가까운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족가치관은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성평등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 3가지 영역에 대해 여성가족패널조사(6차년도)와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문항을 활용하여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세대 간 결속도는 Bengtson의 6개 영역의 결속도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결속도와 정서적 결속도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유무를 살펴보면,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이 145명(82.9%), 결혼의향이 없는 사람이 30명(17.1%)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의향 정도의 평균은 6.80점으로 나타났다. 미혼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 유무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수입에 따른 결혼의향 유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서 결혼의향 유무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비정규직인 사람이 정규직인 사람보다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정규직인 사람이 비정규직인 사람보다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둘째, 미혼청년 및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결혼의향 유무에 대한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미혼청년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성평등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 정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정도도 높아졌는데 반해, 미혼청년의 성평등 가치관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대한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결혼의향 유무에 대한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적 결속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이 높을 때, 미혼청년이 부모와의 사회적 결속이 높다면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결혼 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중요하고, 결혼은 구속이라고 생각할수록 결혼의향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사회 속에 잔재해 있는 남녀불평등, 성역할 구분 등의 의식 및 제도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청년들이 결혼 후 생활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혼의 간접경험이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에 미혼청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 모습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미혼청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결혼의 모습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고, 그런 요소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부모의 가치관이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주는 영향은 접촉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혼청년의 결혼과 관련한 정책에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대한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치관은 부모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점에서 부모의 가족가치관을 부모에게 직접 물어 분석한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부모-자녀 쌍 자료를 활용하여 미혼청년의 가족가치관 뿐 아니라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라는 관계의 질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미혼청년의 결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가족관련 중재 방안을 탐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미혼청년, 부모, 결혼의향, 가족가치관, 세대 간 결속도, 상호작용효과

# I. 서론

## 1. 연구배경

최근 한국사회는 산업화, 여성의 교육 및 사회진출 기회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변화들과 맞물려 가족의 의미 변화, 미혼 선택 및 결혼 유보 현상의 증가,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현상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가족의 형태의 변화가 두드러지며 특히 최근에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유보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사회조사<sup>1)</sup>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64.7%(2010), 62.7%(2012), 56.8%(2014), 51.9%(2016), 48.1%(2018)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sup>2)</sup>에서는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를 참고하여 미혼남녀(20~24세)의 결혼 의향을 비교하였는데, 2015년 ‘결혼할 생각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미혼 남성은 전체의 74.5%, 미혼 여성은 전체의 64.7%였으나, 2018년에는 미혼 남성 전체의 58.8%, 미혼 여성은 전체의 45.3%가 응답하여 그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의 태도에서는 긍정적 태도(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에 응답)를 가진 미혼 남성은 전체의 58.7%, 미혼 여성은 45.2%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비율은 각각 14.5%(미혼 남성), 10.8%(미혼 여성)로 나타나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생애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업이었으며 성인됨의 지표로 여겨졌지만, 점

1) 통계청 사회지표체계 10개 부문 중 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해 2년 주기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조사

2) 한국 사회 가임기(15~49세) 기혼 여성의 결혼·출산·양육과 관련된 가치관 및 형태와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1964년 이후 3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

차 그 규범이 약화되어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변화하고 있다(권소영 외, 2017). 이러한 변화는 단어의 사용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혼’보다는 ‘미혼’이라는 단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써 통용되어 왔지만, ‘미혼’은 결혼을 당연한 생애단계의 발달과업으로 포함시켜 ‘본래 결혼을 해야 하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을 포함하고자 최근에는 ‘비혼’의 사용이 통용되고 있다(이윤애, 2013).

결혼과 출산이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비혼 및 결혼 유보현상의 증가는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지적된다(Kim & Sun, 2011; Koh & Auh, 2013. 재인용: 권소영 외, 2017; 김혜영 & 선보영, 2011). 한국의 저출산 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가치관의 변화를 꼽았는데, 여성의 학력상승은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여성의 권익향상 및 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결혼에 대해 필수 사항에서 선택 사항이 되는 것에 이르렀다고 하였다(장승희, 2014). 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출산 관련 정책에서 청년의 결혼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권소영 외, 2017). 실제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응에 있어 기혼가구의 보육 부담에서 일자리, 주거 등과 관련하여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현상적으로 미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이혼에 의한 증가율(268.5%) 다음으로 미혼 1인 가구 증가율(8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혼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증가 수(66만)를 보였다(이희연 외,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는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정서적 안정과 에너지 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의 유무는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다(곽민주 & 이희숙, 2014). 이러한 점에서 배우자가 없는 상황은 정서적 안정 및 에너지 원천의 부재라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혼 1인가구의 정서적 유대감의 약화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년 1인가구는 중년이나 노인 1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며 원가족과의 접촉 빈도 및 정서적 지지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

구(김혜영 외, 2007. 재인용: 김혜영, 2014)도 있으나, 이와 반대로 김도희(2012)의 연구에서는 청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생활을 하게 되고 이에 비대면적, 활동성 외톨이 등 정서적 유대감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노혜진(2018)의 연구에서는 20~30대 청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1인가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이처럼, 미혼청년들의 비혼 선택 및 결혼유보 현상의 증가는 저출산, 미혼 1인가구의 정서적 유대감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혼청년들의 결혼의향이 어떠한지, 또한 결혼의향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미혼청년의 비혼 혹은 결혼의향으로 측정하였는데, 가족가치관, 직업·경제적 상황, 심리적 요인 등이 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결혼의향에 있어 가족가치관의 영향 요인을 살펴본 연구(강유진, 2017; 강은영 외, 2010; 김은정, 2018; 문선희, 2017; 박혜민, 2018; 이승미, 2016; 진미정 & 정혜은, 2010), 교육수준이나 취업여부,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본 연구(박기남, 2011; 이재경 & 김보화, 2015),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이정하 외, 2017)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미혼청년 당사자 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편 부모관련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최근 연구에서 부모의 지원 제공 여부, 동거여부, 정서적 측면의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자녀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권소영 외, 2017; 임선영 & 박주희, 2014; 조진영, 2016). 부모관련 특성 중에서도 특히 가치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치관은 자녀가 태어나 처음 접하는 환경인 가족 안에서 원가족의 정서 및 가치체계를 공유하면서 형성된다(권소영 외, 2017). 그리고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내면화시킴으로써 완성하게 된다(이삼식, 2006). 따라서 가족 내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모의 가치관은 미혼청년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의 가치관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미혼청년의 가치관에 주목한 반면,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선행연구는 미혼남녀의 결혼이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살펴봐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권소영 외, 2017; 이삼식 외, 2005). 실제로 미혼청년이 얼마나 본인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있어 부모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지는 부모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얼마나 정서적으로 가까운지 등 세대 간 결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혼청년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모의 가치관을 정서표현을 통해 경험하며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접촉의 빈도와 그 관계에 따라 부모의 가치관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가치관이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세대 간 결속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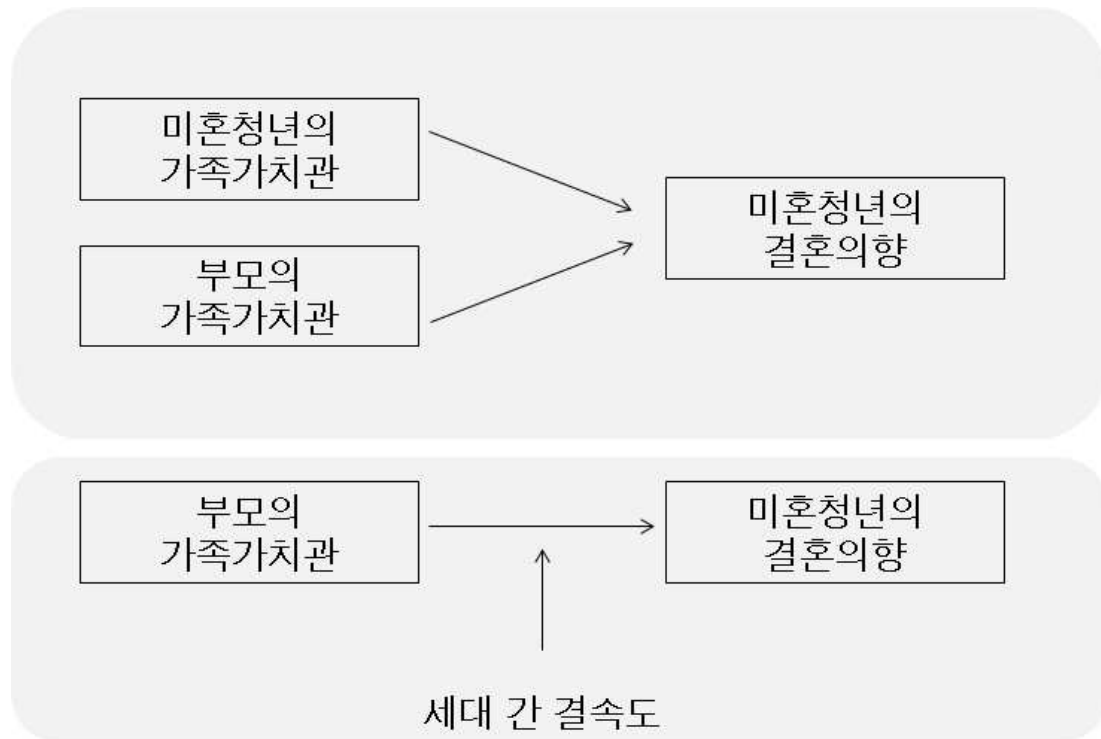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미혼청년 및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대한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효과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미혼청년 및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가치관, 세대 간 결속도 및 결혼의향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혼청년 및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 간 결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모형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이론적 배경

#### 1) 결혼의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그 여부와 시기는 필수적 규범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 되었다(문선희, 2012). 이러한 측면에서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대한 문화적 요인들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Hakim(2000)에 의해 제시된 선호이론(preference theory)은 최근 가족과 출산력의 변화 배경에서 문화적 요인에 주목하였는데, 일과 가족 중 어느 라이프를 선호하는가 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선호가 선택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본다. 이는 가족주의의 약화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미혼청년은 가족 라이프 보다는 개인의 라이프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더불어 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을 줄어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출산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하나로 양성평등 수준이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양성평등이론(gender equity theory)의 관점에서 결혼의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1960년대 이래로 양성평등의 정도는 상당히 높아졌고, 그로 인해 사회제도에 적용되는 양성평등 수준이 불일치해짐에 따라 점차 여성은 출산을 꺼리게 된다고 제안한다(정선호, 2009). 이는 비단 출산만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이 직접적 관계에 놓여있는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을 함으로써 교육과 고용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 결혼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됨을 설명할 수 있다.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은 개인이 갖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통해 행동의도가 결정된다고 가정하며, 이를 통해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 태도와 규범을 갖고 있는 개인이 사회제도에서의 양성평등 불일치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을 줄어둘게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2) 부모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인간을 둘러싼 기본적인고도 중요한 환경이 가족이며 그 중에서도 인간은 태어나 부모를 처음 접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녀는 부모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Bandura의 모델링 이론(modeling theory)에 따르면 아동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자녀의 가치관과 행동은 부모의 역할모델(role model)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Bandura, 1989). 정서사회화 이론(emotion socialization theory)에서는 부모는 최초의 사회화 환경이며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표현한다고 제안하는데, 모델링(modeling), 반응(reactions), 지도(coaching) 세 가지 방식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Denham, 1998). 즉, 자녀는 부모를 관찰하면서 모방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서표현이 가져오는 결과인 부모의 반응을 경험하면서 학습하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가 경험하고 표현하는 정서 상황에 개입하게 된다(Denham, 1998).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부모의 가치관은 미혼청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 반응하여 부모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얼마나 접촉하는지, 그리고 관계는 어떠한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부모와의 접촉이 많거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부모의 가치관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접촉 빈도가 낮거나 관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부모의 가치관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선행연구 고찰

### 1) 결혼의향

전국의 혼인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초혼연령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혼인건수는 302,828건(2015), 281,635건(2016), 264,455건(2017), 257,622건(2018)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2.57세/ 여자 29.96세(2015), 남자 32.79세/ 여자 30.11세(2016), 남자 32.94세/ 여자 30.24세(2017), 남자 33.15세/ 여자 30.40세인 것으로 나타나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는 왜 미혼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가를 밝혀내기 위해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현상적으로 미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크게 ‘비혼’, ‘결혼의향’ 등으로 분석하였는데, ‘비혼’에 대한 연구는 미혼청년에게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고 그 비혼 유형을 구분한 연구(강유진, 2017), 심층면접을 통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묻고 이와 함께 비혼 선택 이유를 분석하여 비혼 선택에 미치는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정하 외, 2017), 35세~49세의 비혼 남녀가 자발적 비혼인지 비자발적 비혼인지를 구분하고, 비혼 유형에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김지유 & 조희선, 2018) 등이 있다.

한편 ‘결혼의향’에 대한 연구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향후 결혼의향 여부 혹은 결혼의향 정도를 묻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권소영 외, 2017; 김은정, 2018; 김혜영 & 선보영, 2011; 문선희, 2012; 임선영 & 박주희, 2014; 전귀연 & 박혜민, 2017).

이 연구에서는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비혼은 결혼 이행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혼청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그 여부를 선택하게 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그 선택도 함께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영구적인 선택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즉,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기 때문에, 비혼을 선택했느냐 하는 문제는 응답자로 하여금 응답

의 모호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혼은 비자발적 유형과 자발적 유형이 있으며, 그 안에서도 세부 유형(결혼비용부담형, 기회상실형, 불이익부담형, 자발형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대부분 자발적 비혼 즉, 스스로 비혼주의 신념을 갖고 있는 상태를 비혼 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비혼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외부 요인(경제적 부담, 결혼제도 부담, 배우자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비자발적 비혼에 놓인 미혼청년이 배제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자발적 비혼에 놓인 미혼청년은 자신을 비혼이라고 답하지 않게 되면서 비자발적 비혼에 놓인 청년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결혼의향은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결혼을 선택하거나 선택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는데(임선영 & 박주희, 2014), 결혼 이행과 관련하여 비혼 보다는 그 선택의 의미가 약하며, 결혼에 대한 태도보다는 더 관련이 깊다. 또한 의향이 높을수록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Fishbein & Ajzen, 1975),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이 어떠한지를 그 유무와 정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결혼의향이 ‘있다’, ‘없다’의 이분법적인 측정으로 논의하였으나, 결혼의향은 이분법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정도 혹은 수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권소영 외, 2017)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결혼의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결혼의향 여부와 향후 결혼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이란 가족에 대한 여러 가치를 통틀어 할 수 있는데(은기수 & 이윤석, 2005), 여기에는 가족의 형성부터 시작하여 가족 내 관계, 그리고 그런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기능하는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관이 포함된다(김규원, 1995; 은기수 & 이윤석, 2005. 재인용: 손승영 & 김은정, 2010). 가족가치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여러 정의를 종합해보면 가족의 모든 것에 대한 바람직성을 지각 또는 판단하는 일체의 가치관을 의미한다(저윤평, 2014). 가족가치관 개념 이해를 위해 국내 연구에서 가족가치관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리해보면 [표 1]와 같다.

[표 1] 선행연구에서의 가족가치관 측정영역

학자	연도	측정영역
김경신	1998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은기수	2004	부모-자식 간의 관계, 결혼과 이혼, 자유로운 성, 매춘과 동성애,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
김혜영	2005	결혼관, 성역할태도, 성의식, 부모자녀관
강은영 외	2010	성·가족 의식(전통적 성역할 의식, 자유로운 성의식, 개방적 결혼관, 가족주의, 다양한 가족 수용도), 독신성향(결혼의 두려움, 결혼외적요소에 가치부여 변인)
문선희	2012	결혼 가치관, 가족 가치관, 가족 내 역할 가치관, 부모 관계 가치관
유종열	2012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임선영·박주희	2014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저윤평	2014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부모부양가치관, 양성평등가치관, 가족주의가치관
우민희 외	2015	1인가구에 대한 태도,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태도, 전통적 가족주의
강유진	2017	가족수용성, 결혼가치관, 성역할가치관, 자녀가치관
김태한·조성희	2018	결혼자녀 가치관, 가족 부양 가치관, 성역할 가치관
박소진 외	2018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
유계숙 외	2018	전통적 가족주의이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각각의 가족가치관 하위 영역들을 선행연구에서 어떻게 측정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용이 혼재되어있는 경향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는 가족가치관이 ‘가족에 대한 여러 가치’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무엇에 대한 가치인가?’를 바탕으로 범주화 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는데, 크게 가족의 형성·해체·재구성, 가족 내 관계, 성평등, 가족주의의 4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2. 참조).

가족의 형성·해체·재구성은 결혼, 출산,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가치관을 비롯하여 결혼제도 등에 대한 태도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결혼관 혹은 자녀관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결혼관을 통해 결혼에 대한 가치관뿐 아니라 출산, 이혼, 재혼, 그리고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을 측정하여, 그 안에서 여러 가치를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관을 통해 자녀 출산의 필요성과 시기 등을 측정하고 있어 출산 가치관과 측정 영역이 중복되고 있었다.

가족 내 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가족 부양 등에 대한 가치관을 측정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부관계를 결혼관으로, 자녀의 양육, 자녀의 정서적, 도구적 중요성 등을 자녀관으로, 그리고 부모 부양 및 효에 관한 태도를 부양 및 효도관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이는 또한 가족의 형성·해체·재구성의 결혼관과 그 사용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평등은 부부관계의 평등함과 성역할 태도 등에 대한 가치관으로 가족 내 역할관, 성역할관 등으로 측정되고 있었다. 가족주의는 결혼과 가족 그리고 나의 생활, 자아성취 등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우선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족주의 가치관, 결혼가치관으로 측정되고 있어, 역시 가족의 형성·해체·재구성의 결혼관과 혼용되고 있었다.

가족가치관을 선행연구에서는 어떻게 측정했는지를 살펴보고, 무엇에 대한 가치인지를 기준으로 범주화 해봄으로써 그 사용의 혼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무엇에 대한 가치인지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가치관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4가지 하위영역 중에서도 가족의 형성·해체·재구성 가치관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성평등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 3가지 영역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청년남녀에게 출산, 재혼, 이혼 그리고 가족 내 관계(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부양 등)에 대한 가치관을 물어보는 것은 이 연구

의 목적과 거리가 있어 제외하였다.

[표 2]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

항 목	선 행 연 구	
1) 가족의 형성·해체·재구성 결혼, 출산, 이혼, 재혼에 대한 가치관,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등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선희(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가치관: 결혼을 해야만 완전한 성인이 됨</li> </ul> </li> <li>·임선영&amp;박주희(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관: 결혼에 대한 필요성</li> </ul> </li> <li>·김경신(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관: 결혼의 필요성, 배우자 선택 양식, 사랑 및 성의식</li> </ul> </li> </ul>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경신(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관: 자녀의 필요성</li> </ul> </li> <li>·문선희(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가치관: 결혼을 해도 아이는 천천히</li> </ul> </li> <li>·임선영&amp;박주희(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관: 자녀 출산에 대한 필요성</li> </ul> </li> </ul>
	해체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경신(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관: 이혼·재혼관</li> </ul> </li> </ul>
	결혼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경신(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관: 결혼의례</li> </ul> </li> <li>·강유진(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가치관: 형식 중시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li> </ul> </li> <li>·임선영&amp;박주희(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관: 혼전동거에 대한 수용적 태도</li> </ul> </li> </ul>
2) 가족 내 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 부양 등에 대한 가치 관	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경신(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관: 부부관계</li> </ul> </li> </ul>
	부모-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경신(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관: 자녀양육방식, 자녀양육관 등</li> </ul> </li> <li>·임선영&amp;박주희(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관: 자녀의 정서적 중요성</li> </ul> </li> <li>·강유진(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치관: 자녀의 정서적, 도구적 가치에 대한 태도</li> </ul> </li> </ul>
	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경신(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 및 효도관</li> </ul> </li> </ul>

<p><b>3) 성평등</b> 가족 및 사회 내 성역할, 남녀 평등의식 등에 대한 가치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경신(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역할관: 남녀평등의식, 성고정관념, 여성취업의식 등</li> </ul> </li> <li>·문선희(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내 역할관</li> <li>-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 부부관계의 평등성</li> </ul> </li> <li>·임선영&amp;박주희(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역할관</li> </ul> </li> <li>·강유진(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역할 가치관</li> </ul> </li> </ul>
<p><b>4) 가족주의</b> '결혼과 가족 혹은 '나의 생활 중 어느 쪽을 우선 하는가'에 대한 가치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경신(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주의 가치관</li> </ul> </li> <li>·문선희(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가치관: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li> </ul> </li> <li>·강유진(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가치관: 가족중심적 전통적 결혼태도</li> </ul> </li> </ul>

### 3) 가족가치관과 결혼 의향

가족가치관과 결혼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형성·해체·재구성 가치관, 성평등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이 미혼청년의 결혼의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족가치관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의 형성·해체·재구성 가치관 중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즉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긍정적이었고(문선희, 2012; 임선영 & 박주희, 2014),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 후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결혼의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문선희, 2012), 해체·재구성에 대한 가치관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결혼의향이 긍정적이었으며(문선희, 2012),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으로는 혼전 성관계나 동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결혼의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문선희, 2012; 임선영 & 박주희, 2014).

다음으로 성평등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부부 역할에 대해 평등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한 연구도 있는 반면(문선희, 2012), 부부 역할에 대해 평등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부정적이라는 결과(김은정, 2018;



임선영 & 박주희, 2014, 조진영, 2016)도 있다. 이렇게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나, 대상(성별, 연령)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성평등가치관이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의 결과로는 결혼 보다는 자신의 성취를 지향하고, 결혼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결혼의향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18).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미혼청년의 가족가치관은 결혼의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출산, 해체·재구성, 가족 내 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미혼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혼 후 발생하는 상황과 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것은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아 제외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4)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미혼청년의 결혼 의향

미혼청년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특성이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만, 부모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며 주로 부모 관련 특성(교육수준, 지원제공여부, 동거여부 등)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룬다. 부모 관련 특성과 결혼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과 부모에게 주는 도구적 지원이 미혼청년의 결혼의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선영 & 박주희, 2014; 조진영, 2016), 남성의 경우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자주 제공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소영 외, 2017).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부모 관련 특성으로 교육수준, 부모-자녀 간 지원제공여부, 동거여부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모의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합리적 행동의론에 따르면 개인의 주관적 태도나 가치관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가치관

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 및 반응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한다. 따라서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의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모의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5) 세대 간 결속도와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한편, 미혼청년이 경험하는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부부 관계 특성 중 부모와의 애정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부모와의 애정적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결혼의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권소영 외, 2017), 부모-자녀 간 유대감과 부모로부터의 독립심이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독립심을 낮게 가질수록, 그리고 아버지와의 유대감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박정운 & 김예리, 2010)도 있다. 부모와의 관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국외연구에서는 다수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연구에서는 부모의 갈등이 많은 경우 자녀의 결혼태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으며(Jennings & Salts & Smith, 1991), 부모가 이혼한 경우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Riggio & Weiser, 2008; Sodermans, Bastaits, Vanassche, Matthijs & Peer, 2008)보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의 중재효과를 살펴 본 연구는 드물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 및 반응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 관계는 어떠한지에 따라서 부모 가치관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부모와 자주 접촉하고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부모 가치관의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접촉정도와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세대 간 결속도를 통하여 결혼의향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 40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며, 부모의 가족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가 한 명 이상 생존하고 함께 설문조사가 가능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제주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09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이다. 설문은 566부(283쌍) 배부되었으며, 434부(217쌍)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부실 기재된 38부(19쌍)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396부(198쌍)의 설문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총 184가족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고, 아버지 69명, 어머니 129명, 미혼청년남녀 185명이었으며, 미혼청년남녀의 경우 남성 72명, 여성 113명이었다.

## 2. 변수의 구성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변수(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수입 등)를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권소영 외, 2017; 김혜영 & 선보영, 2011; 조진영, 2016).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에 재학 중인지의 여부와 재학 중인 경우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학사, 석사, 박사), 취업여부, 미취업인 이유, 미취업 상태에서 생활비를 어떤 경로로 얻고 있는지, 취업 중인 경우 종사상의 지위, 수입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중 부모는 5개의 변수만으로 구성하였는데, 성별, 연령, 최종학력 그리고 종사상의 지위와 수입으로 구성되었다.

### 2) 결혼의향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은 결혼의향의 여부와 결혼의향의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결혼의향 유무

결혼의향의 유무는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1,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 (2) 결혼의향 정도

다음으로 결혼의향의 정도를 측정할 문항은 ‘10점을 만점으로, 귀하의 결혼 의향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라는 문항에 10점에 가까워질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 3)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의 6차년도 설문(개인용)과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문항을 활용하여,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아래의 3가지 하위 영역(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성평등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로 구성 된 5점 Likert

척도로, 가족 내 역할과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이라는 제도 없이도 동거나 출산을 할 수 있으며, 보다 성평등한 의식을 갖고 있고, 결혼을 하면 자신의 생활이 구속받고, 결혼보다는 자신의 성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 (1)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가족의 형성·해체·재구성 가치관 중 결혼제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성가족패널조사(6차년도)의 가족관련가치관 문항에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와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2문항을 사용하였다.

#### (2) 성평등 가치관

성평등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성가족패널조사(6차년도)의 가족관련가치관 문항 중 가족 내 역할에 관한 문항(2문항)과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중 부계 중심적 가족 제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3문항), 그리고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4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6차년도)의 가족관련 가치관 문항에서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 받는다’ 2문항을 사용하였다.

#### 4) 세대 간 결속도

이 연구에서는 미혼청년이 느끼는 부모와의 결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Bengtson이 제안한 6개 영역의 가족결속도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구성하였으며, 그 중 사회적 결속도와 정서적 결속도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 (1) 사회적 결속

부모와 얼마나 만나는지, 통화하는지 그리고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등)를 주고 받는지를 측정하는 것(3문항)으로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음’(1점), ‘1년에 1~2회’(2점), ‘1년에 여러 번’(3점), ‘거의 매달 혹은 매달’(4점), ‘거의 매주 혹은 매주’(5점), ‘거의 매일 또는 매일’(6점)의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2) 정서적 결속

부모와의 정서적 측면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는지, 부모와 얼마나 잘 지내는지, 부모님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총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6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를 가깝게 느끼고, 부모와 잘 지낸다고 느끼며,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부모님이 자신을 잘 이해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한다.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4.0과 Stata 14.0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했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의 미혼청년 및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가치관, 세대 간 결속도 및 결혼의향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또한 결혼의향의 유무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chi^2$ )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의 미혼청년 및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문제 3]의 결혼의향에 대한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Stata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한 가족의 부모, 자녀가 포함되므로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 미혼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먼저, 미혼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의 구성을 보면, 남성이 72명(38.9%), 여성이 113명(61.1%)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의 구성을 보면, 24세 이상 27세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전체의 52.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28세 이상 31세 이하가 36명(19.5%)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세 이상 23세 이하가 33명(1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으로는,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졸업은 없었으며, 대학교 졸업 110명(60.1%), 고등학교 졸업 60명(32.8%), 대학원(석사 혹은 박사)졸업 12명(6.6%)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 여부의 경우, 현재 학교를 다니는 사람 73명(39.5%),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 112명(60.5%)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취업 여부의 경우, 취업 중인 사람 120명(64.9%), 취업 중이 아닌 사람 65명(35.1%)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 한 사람 중에서는 정규직 70명(58.8%), 비정규직 49명(41.2%)로 정규직의 비율이 높았다. 월수입으로는, 취업 중이 아닌 경우 한 달 생활비의 개념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54명(30.9%)로 가장 많았으며,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0명(22.9%)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리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8명(16.0%), 250만원 이상이 23명(13.1%), 50만원 미만이 20명(11.4%), 마지막으로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10명(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미혼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185

변수	구분	N(%)
성별	남성	72(38.9)
	여성	113(61.1)
연령	20세 이상 23세 이하	33(17.8)
	24세 이상 27세 이하	97(52.4)
	28세 이상 31세 이하	36(19.5)
	32세 이상 35세 이하	11(5.9)
	36세 이상 40세 이하	8(4.3)
교육 수준	고졸 이하	60(32.8)
	대졸	110(60.1)
	대학원 이상	12(6.6)
	기타	1(.5)
취업 여부	미취업	65(35.1)
	취업	120(64.9)
취업-종사상 지위	비정규직	49(41.2)
	정규직	70(58.8)
수입	50만원 미만	20(11.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8(16.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0(5.7)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0(22.9)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54(30.9)
	250만원 이상	23(13.1)

\* 미혼청년이 부모 2명에 대해 응답한 경우 1개만 남김

\*\* 결측치로 인하여 항목 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 2)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성별의 구성을 보면, 여성 129명(65.2%), 남성 69명(34.8%)으로, 어머니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으로는, 40대 27명(13.7%), 50대 128명(65.0%), 60대 42명(21.3%)으로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111명(56.3%)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 67명(34.0%), 초등 혹은 중학교 졸업이 10명(5.1%), 대학원(석사 혹은 박사)졸업 7명(3.6%), 기타가 2명(1.0%)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의 지위 구성을 보면, 자영업자 75명(38.7%), 상용직(정규직) 54명(27.6%), 무직 26명(13.3%), 임시직 17명(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고(41명, 21.2%),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35명(18.1%),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4명(17.6%)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6명(13.5%) 등의 순이었다.

[표 4]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198

변수	구분	N(%)
성별	남성	69(34.8)
	여성	129(65.2)
연령	40대	27(13.7)
	50대	128(65.0)
	60대	42(21.3)
교육 수준	초 혹은 중졸	10(5.1)
	고졸	111(56.3)
	대졸	67(34.0)
	대학원 이상	7(3.6)
	기타	2(1.0)
수입	50만원 미만	7(3.6)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2.1)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0(5.2)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4(17.6)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35(18.1)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6(13.5)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20(10.4)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8.3)
	400만원 이상	41(21.2)

\* 결측치로 인하여 항목 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 2.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먼저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유무의 경향을 살펴보면,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이 145명(82.9%)으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30명, 17.1%)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의향의 정도를 보면, 10점을 만점으로 8점정도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7명(20.1%), 10점 27명(14.7%), 9점 26명(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의향의 정도는 평균은 6.80점이었다.

[표 5]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유무의 경향

N= 185

변수	구분	N(%)
결혼의향의 유무	없음	30(17.1)
	있음	145(82.9)

\* 미혼청년이 부모 2명에 대해 응답한 경우 1개만 남김

[표 6]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정도의 경향

N= 185

변수	구분	N(%)
결혼의향의 정도	1	5(2.7)
	2	6(3.3)
	3	16(8.7)
	4	15(8.2)
	5	11(6.0)
	6	15(8.2)
	7	26(14.1)
	8	37(20.1)
	9	26(14.1)
	10	27(14.7)
	M(SD)	6.80(2.54)

\* 미혼청년이 부모 2명에 대해 응답한 경우 1개만 남김

### 3. 미혼청년과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경향

미혼청년과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경향으로는 가족가치관의 3가지 영역의 평균 분석을 해본 결과,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은 미혼청년이 5.58, 부모가 4.16이었다(아버지 4.07, 어머니 4.21). 성평등 가치관은 미혼청년 36.17, 부모 29.92(아버지 27.67, 어머니 31.13), 그리고 가족주의 가치관은 미혼청년이 6.84, 부모가 6.04(아버지 5.54, 어머니 6.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미혼청년과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경향

구분	미혼청년 (N=185)		부모 (N=198)		아버지 (N=69)		어머니 (N=129)	
	M(SD)	range	M(SD)	range	M(SD)	range	M(SD)	range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5.58 (1.82)	2-10	4.16 (1.69)	2-8	4.07 (1.59)	2-8	4.21 (1.75)	2-8
성평등 가치관	36.17 (1.66)	20-45	29.92 (6.19)	13-45	27.67 (6.52)	13-43	31.13 (5.67)	18-45
가족주의 가치관	6.84 (6.04)	2-10	6.04 (1.66)	2-10	5.54 (1.68)	2-9	6.31 (1.59)	3-10

###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 유무의 차이

미혼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 유무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 모두 높았다. 연령으로는 24세 이상 27세 이하인 경우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모두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없다고 응답한 비율 모두 높았으며, 취업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 모두 높았다. 수입으로는 20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인 경우

에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 모두 높았다. 하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정규직인 사람이 비정규직인 사람보다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비정규직인 사람이 정규직인 사람보다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8] 미혼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 유무의 차이

N(%)

구분		결혼의향 (N=185)		
		없음	있음	$\chi^2$
성별	남성	9(30.0)	60(41.4)	.246
	여성	21(70.0)	85(58.6)	
연령	20세 이상 23세 이하	3(10.0)	29(20.0)	.183
	24세 이상 27세 이하	18(60.0)	74(51.0)	
	28세 이상 31세 이하	4(13.3)	31(21.4)	
	32세 이상 35세 이하	4(13.3)	6(4.1)	
	36세 이상 40세 이하	1(3.3)	5(3.4)	
교육 수준	고졸 이하	9(30.0)	50(35.0)	.362
	대졸	17(56.7)	85(59.4)	
	대학원 이상	4(13.3)	7(4.9)	
	기타	-	1(0.7)	
취업 여부	미취업	10(33.3)	53(36.6)	.738
	취업	20(66.7)	92(63.4)	
종사상 지위	비정규직	12(60.0)	32(35.2)	.040*
	정규직	8(40.0)	59(64.8)	
수입	50만원 미만	3(10.3)	16(11.7)	.565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17.2)	23(16.8)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3.4)	8(5.8)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27.6)	30(21.9)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11(37.9)	39(28.5)	
	250만원 이상	1(3.4)	21(15.3)	

\*  $p < .05$

\* 미혼청년이 부모 2명에 대해 응답한 경우 1개만 남김

\*\* 결측치로 인하여 항목 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 5. 가족가치관, 세대 간 결속도, 결혼의향간의 상관관계

미혼청년과 부모의 가족가치관, 미혼청년의 세대 간 결속도와 결혼의향 간의 상관관계는 [표 9]와 같다.

먼저 미혼청년의 가족가치관과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미혼청년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도 높았다( $p < .001$ ). 또한, 미혼청년의 성평등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모의 성평등 가치관과 가족주의 가치관 모두 높았다. 미혼청년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모의 성평등 가치관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혼청년의 가족가치관과 미혼청년의 세대 간 결속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사회적 결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미혼청년의 세대 간 결속도의 상관관계는, 부모의 성평등 가치관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미혼청년의 사회적 결속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가족가치관, 세대 간 결속도 및 결혼의향 간의 상관관계

구분	미혼청년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미혼청년 -성평등 가치관	미혼청년 -가족주의 가치관	부모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부모 -성평등 가치관	부모 -가족주의 가치관	사회적 결속	정서적 결속	결혼의향 정도
미혼청년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1								
미혼청년 -성평등 가치관	0.069	1							
미혼청년 -가족주의 가치관	0.229 <sup>**</sup>	0.150 <sup>*</sup>	1						
부모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0.283 <sup>***</sup>	-0.016	-0.015	1					
부모 -성평등 가치관	0.045	0.443 <sup>***</sup>	0.145 <sup>*</sup>	0.032	1				
부모 -가족주의 가치관	-0.049	0.175 <sup>*</sup>	0.233 <sup>**</sup>	0.047	0.247 <sup>**</sup>	1			
사회적 결속	-0.089	0.060	0.162 <sup>*</sup>	0.040	0.276 <sup>***</sup>	0.158 <sup>*</sup>	1		
정서적 결속	-0.124	-0.022	-0.035	-0.049	0.098	0.039	0.251 <sup>***</sup>	1	
결혼의향 정도	-0.224 <sup>**</sup>	-0.295 <sup>***</sup>	-0.535 <sup>***</sup>	0.017	-0.080	-0.148 <sup>*</sup>	-0.117	0.278 <sup>***</sup>	1

\* p < .05 \*\* p < .01 \*\*\* p < .001

## 6.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의향은 유무와 정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미혼청년과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미혼청년의 세대 간 결속도를 통제한 후 미혼청년과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미혼청년의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때 변수는 평균중심화 한 뒤 분석하였다.

### 1)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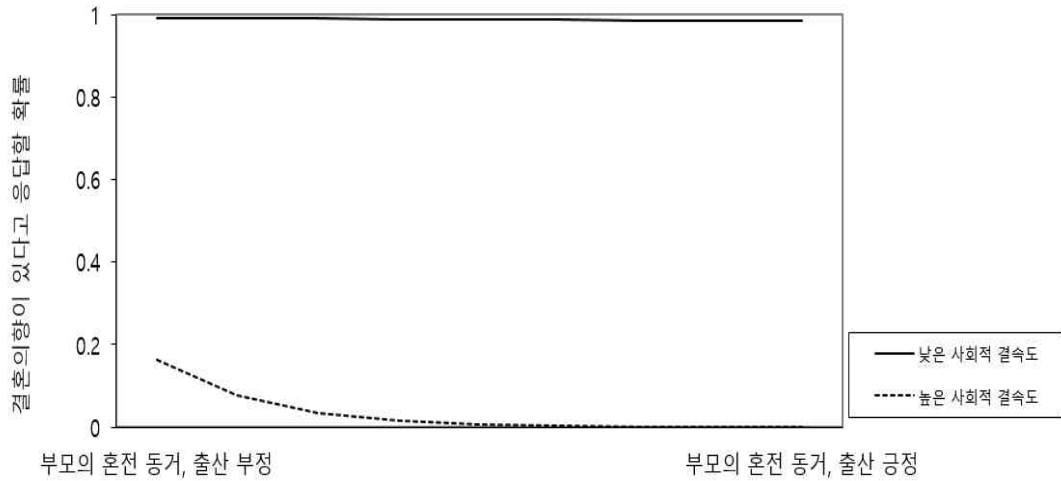
미혼청년과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유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10]과 같다.

Model 1에서는 미혼청년의 정서적 결속과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미혼청년의 정서적 결속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1.170배 높아졌고( $B=.16, p < .05$ ), 미혼청년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691배 낮아졌다( $B=-.37, p < .01$ ).

Model 2에 부모의 가치관이 결혼의향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부모가치관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odel 3에서는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미혼청년의 사회적 결속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그림 2] 결혼의향 유무에 대한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적 결속의 상호작용 효과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유무에 대한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미혼청년의 사회적 결속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사회적 결속이 높을 때,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의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높을 때, 미혼청년이 부모와의 교류(대면, 전화, 메시지) 정도가 많다면,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884배 높았다( $B=-.12, p < .05$ ). 이는 부모가 결혼을 통해서 동거나 출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부모와의 접촉이 많다면 그 영향을 받아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석된다.

[표 10]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유무에 미치는 영향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B(S.E.)	sig.	Exp(B)	B(S.E.)	sig.	Exp(B)	B(S.E.)	sig.	Exp(B)
<b>인구사회학적 특성(미혼청년)</b>									
성별	-.80(.57)	.156	.448	-.82(.57)	.152	.439	-.91(.60)	.130	.401
연령	-.51(.28)	.068	.602	-.49(.28)	.078	.613	-.43(.27)	.114	.649
교육수준	-.07(.56)	.902	.933	-.04(.57)	.947	.963	-.07(.59)	.907	.934
수입	.21(.17)	.221	1.238	.20(.18)	.245	1.226	.19(.19)	.312	1.207
<b>인구사회학적 특성(부모)</b>									
성별	-.06(.53)	.915	.945	-.04(.53)	.936	.958	-.11(.57)	.852	.900
연령	.23(.44)	.590	1.265	.19(.46)	.679	1.207	.18(.47)	.698	1.202
교육수준	-.68(.37)	.069	.507	-.66(.39)	.086	.515	-.72(.39)	.067	.485
수입	.12(.11)	.307	1.123	.12(.11)	.306	1.123	.15(.11)	.202	1.157
<b>미혼청년의 결속도</b>									
사회적 결속	-.08(.12)	.488	.922	-.09(.12)	.463	.917	-.13(.13)	.320	.881
정서적 결속	.16(.07)	.019*	1.170	.16(.07)	.022*	1.168	.18(.07)	.014*	1.194
미혼청년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37(.14)	.006**	.691	-.39(.14)	.006**	.677	-.38(.14)	.006**	.687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09(.13)	.515	1.091	.18(.14)	.192	1.200
부모가치관 × 사회적 결속							-.12(.06)	.026*	.884
부모가치관 × 정서적 결속							.02(.03)	.504	1.019

\* p < .05 \*\* p < .01

미혼청년과 부모의 성평등 가치관과 미혼청년의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유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11]과 같다.

Model 1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538배 낮아졌고( $B=-.62, p < .05$ ), 미혼청년의 정서적 결속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1.194배 높아졌다( $B=.18, p < .01$ ). 또한 미혼청년의 성평등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902배 낮아졌다( $B=-.10, p < .05$ ). Model 2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540배 낮아졌고( $B=-.62, p < .05$ ), 미혼청년의 정서적 결속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1.199배 높아졌다( $B=.18, p < .01$ ). 또한 미혼청년의 성평등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902배 낮아졌다( $B=-.10, p < .05$ ). Model 3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524배 낮아졌고( $B=-.65, p < .05$ ), 미혼청년의 정서적 결속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1.205배 높아졌다( $B=.19, p < .01$ ). 또한 미혼청년의 성평등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902배 낮아졌다( $B=-.10, p < .05$ ).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직접효과나,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Model 2, 3 참조).

[표 11] 성평등 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유무에 미치는 영향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B(S.E.)	sig.	Exp(B)	B(S.E.)	sig.	Exp(B)	B(S.E.)	sig.	Exp(B)
<b>인구사회학적 특성(미혼청년)</b>									
성별	-.12(.50)	.817	.890	-.09(.50)	.856	.913	-.05(.51)	.914	.947
연령	-.27(.28)	.331	.762	-.27(.28)	.327	.761	-.26(.28)	.353	.768
교육수준	-.18(.59)	.765	.839	-.11(.61)	.852	.893	-.10(.59)	.866	.906
수입	.10(.20)	.607	1.107	.09(.20)	.666	1.091	.08(.20)	.697	1.081
<b>인구사회학적 특성(부모)</b>									
성별	-.14(.54)	.794	.869	-.18(.57)	.750	.834	-.16(.58)	.782	.852
연령	.10(.43)	.821	1.103	.05(.45)	.909	1.052	.04(.46)	.934	1.039
교육수준	-.62(.31)	.044*	.538	-.62(.31)	.047*	.540	-.65(.31)	.039*	.524
수입	.12(.11)	.254	1.129	.12(.11)	.246	1.131	.11(.11)	.310	1.116
<b>미혼청년의 결속도</b>									
사회적 결속	-.08(.12)	.505	.921	-.09(.12)	.479	.918	-.10(.13)	.424	.904
정서적 결속	.18(.07)	.007**	1.194	.18(.07)	.008**	1.199	.19(.07)	.007**	1.205
<b>미혼청년의 성평등 가치관</b>									
부모의 성평등 가치관	-.10(.04)	.013*	.902	-.10(.05)	.025*	.902	-.10(.05)	.026*	.902
<b>부모가치관 × 사회적 결속</b>									
부모가치관 × 정서적 결속							.01(.01)	.357	1.008
<b>부모가치관 × 정서적 결속</b>									
							.01(.01)	.476	1.007

\* p < .05 \*\* p < .01

미혼청년과 부모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미혼청년의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유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12]와 같다.

Model 1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504배 낮아졌고( $B=-.69, p < .05$ ), 미혼청년의 정서적 결속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1.207배 높아졌다( $B=.19, p < .01$ ). 또한 미혼청년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343배 낮아졌다( $B=-1.07, p < .001$ ). Model 2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452배 낮아졌고( $B=-.79, p < .05$ ), 미혼청년의 정서적 결속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1.189배 높아졌다( $B=.17, p < .01$ ). 또한 미혼청년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368배 낮아졌다( $B=-1.00, p < .01$ ). Model 3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445배 낮아졌고( $B=-.81, p < .01$ ), 미혼청년의 정서적 결속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1.197배 높아졌다( $B=.18, p < .01$ ). 또한 미혼청년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364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1.01, p < .01$ ).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직접효과나,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Model 2, 3 참조).

[표 12] 가족주의 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유무에 미치는 영향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B(S.E.)	sig.	Exp(B)	B(S.E.)	sig.	Exp(B)	B(S.E.)	sig.	Exp(B)
<b>인구사회학적 특성(미혼청년)</b>									
성별	.75(.69)	.272	2.124	.64(.67)	.334	1.902	.73(.66)	.269	2.070
연령	-.16(.27)	.551	.852	-.13(.28)	.641	.876	-.12(.27)	.664	.887
교육수준	-.46(.54)	.400	.633	-.46(.58)	.429	.631	-.49(.56)	.377	.611
수입	.09(.20)	.655	1.092	.03(.21)	.872	1.034	.01(.20)	.951	1.013
<b>인구사회학적 특성(부모)</b>									
성별	-.05(.49)	.916	.949	.07(.51)	.886	1.076	.01(.51)	.984	1.010
연령	.21(.52)	.693	1.230	.20(.53)	.699	1.227	.21(.52)	.684	1.237
교육수준	-.69(.31)	.029*	.504	-.79(.31)	.010*	.452	-.81(.30)	.007**	.445
수입	.07(.13)	.584	1.075	.04(.12)	.702	1.046	.05(.12)	.699	1.046
<b>미혼청년의 결속도</b>									
사회적 결속	-.07(.16)	.638	.929	-.03(.16)	.854	.972	-.05(.17)	.783	.954
정서적 결속	.19(.07)	.005**	1.207	.17(.06)	.006**	1.189	.18(.06)	.005**	1.197
<b>미혼청년의 가족주의 가치관</b>									
부모의 가족주의 가치관	-1.07(.30)	.000***	.343	-1.00(.30)	.001**	.368	-1.01(.30)	.001**	.364
<b>부모의 가족주의 가치관</b>									
부모가치관 × 사회적 결속							.06(.06)	.349	1.061
부모가치관 × 정서적 결속							.03(.04)	.527	1.026

\* p < .05 \*\* p < .01 \*\*\* p < .001

## 2)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혼청년과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미혼청년의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13]과 같다.

Model 1에서는 미혼청년의 성별과 사회적 결속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미혼청년의 성별이 여성일수록, 부모와의 사회적 결속이 높을수록 결혼의향 정도가 낮아졌다. Model 2에서는 미혼청년의 성별과 정서적 결속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미혼청년의 성별이 여성일수록 결혼의향 정도는 낮아졌고, 부모와의 정서적 결속이 높을수록 결혼의향 정도가 높아졌다. Model 3에서는 미혼청년의 성별과 정서적 결속, 그리고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미혼청년의 성별이 여성일수록 결혼의향 정도가 낮아졌고, 부모와의 정서적 결속과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이 높을수록 결혼의향 정도가 높아졌다.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직접효과나,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Model 2, 3 참조).

미혼청년과 부모의 성평등 가치관과 미혼청년의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14]와 같다. Model 1에서는 부모의 수입과, 미혼청년의 정서적 결속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수입이 많을수록, 부모와의 정서적 결속이 높을수록 결혼의향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와 Model 3에서는 미혼청년의 정서적 결속과 성평등 가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부모와의 정서적 결속이 높을수록 결혼의향 정도는 높아졌고, 성평등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 정도는 낮아졌다.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직접효과나,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Model 2, 3 참조).

미혼청년과 부모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미혼청년의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15]와 같다. 미혼청년의 정서적 결속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의 정서적 결속이 높을수록 결혼의향 정도는 높아졌고,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결혼의향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직접효과나,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Model 2, 3 참조).

[표 13]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정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B(S.E.)	sig.	B(S.E.)	sig.	B(S.E.)	sig.
<b>인구사회학적 특성(미혼청년)</b>						
성별	-1.41(.56)	.013*	-1.43(.56)	.012*	-1.56(.59)	.009*
연령	-.14(.32)	.656	-.12(.32)	.719	-.18(.30)	.562
교육수준	.47(.63)	.454	.48(.64)	.456	.48(.63)	.446
수입	.45(.28)	.112	.44(.29)	.125	.44(.28)	.119
<b>인구사회학적 특성(부모)</b>						
성별	.28(.49)	.570	.27(.49)	.581	.01(.46)	.986
연령	-1.73(1.75)	.324	-1.78(1.74)	.308	-1.78(1.75)	.312
교육수준	-.59(.53)	.265	-.58(.54)	.281	-.64(.56)	.253
수입	.02(.01)	.092	.02(.01)	.080	.02(.01)	.132
<b>미혼청년의 결속도</b>						
사회적 결속	-.01(.17)	.009**	-.01(.17)	.941	.02(.20)	.935
정서적 결속	.18(.07)	.973	.19(.07)	.008**	.22(.07)	.003**
<b>미혼청년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b>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84(.52)	.109	-.87(.51)	.091	-.89(.52)	.091
부모가치관 × 사회적 결속			.11(.12)	.337	.18(.11)	.088 †
부모가치관 × 정서적 결속					-.17(.12)	.163
					-.04(.05)	.423
R <sup>2</sup>	.089		.089		.099	

† p < .10 \* p < .05 \*\* p < .01



[표 14] 성평등 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정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B(S.E.)	sig.	B(S.E.)	sig.	B(S.E.)	sig.
<b>인구사회학적 특성(미혼청년)</b>						
성별	-.41(.74)	.578	-.46(.75)	.536	-.44(.77)	.573
연령	.15(.39)	.695	.10(.39)	.796	.11(.39)	.771
교육수준	.41(.54)	.454	.37(.57)	.512	.37(.56)	.517
수입	.33(.24)	.168	.38(.25)	.124	.38(.24)	.125
<b>인구사회학적 특성(부모)</b>						
성별	.06(.47)	.902	-.10(.50)	.845	-.10(.51)	.840
연령	-1.94(1.85)	.295	-1.82(1.86)	.329	-1.84(1.88)	.331
교육수준	-.57(.50)	.263	-.64(.53)	.225	-.64(.54)	.233
수입	.03(.02)	.048*	.03(.02)	.060	.03(.02)	.065
<b>미혼청년의 결속도</b>						
사회적 결속	.02(.19)	.910	-.01(.18)	.964	-.01(.19)	.974
정서적 결속	.23(.07)	.001**	.22(.07)	.002**	.22(.07)	.002**
<b>미혼청년남녀의 성평등 가치관</b>						
부모의 성평등 가치관			-.22(.11)	.041*	-.23(.11)	.045*
부모가치관 × 사회적 결속			.07(.05)	.143	.08(.05)	.149
부모가치관 × 정서적 결속					.01(.02)	.633
					.00(.01)	.999
R <sup>2</sup>	.074		.075		.076	

\* p < .05 \*\* p < .01

[표 15] 가족주의 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가 결혼의향 정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B(S.E.)	sig.	B(S.E.)	sig.	B(S.E.)	sig.
<b>인구사회학적 특성(미혼청년)</b>						
성별	-.11(.54)	.838	-.22(.55)	.684	-.15(.56)	.784
연령	.09(.31)	.784	.06(.34)	.862	.06(.35)	.862
교육수준	.31(.45)	.495	.42(.49)	.385	.36(.48)	.455
수입	.28(.27)	.300	.27(.26)	.308	.24(.25)	.338
<b>인구사회학적 특성(부모)</b>						
성별	.14(.41)	.730	.32(.43)	.465	.34(.44)	.440
연령	-1.87(1.82)	.305	-1.92(1.86)	.304	-1.93(1.88)	.305
교육수준	-.06(.52)	.253	-.64(.53)	.230	-.68(.54)	.212
수입	.02(.01)	.156	.02(.01)	.176	.02(.01)	.208
<b>미혼청년의 결속도</b>						
사회적 결속	.04(.18)	.829	.07(.20)	.734	.06(.20)	.743
정서적 결속	.21(.06)	.001**	.20(.06)	.001**	.21(.06)	.001**
<b>미혼청년의 가족주의 가치관</b>						
부모의 가족주의 가치관	-.80(.13)	.000***	-.78(.13)	.000***	-.79(.13)	.000***
부모가치관 × 사회적 결속			-.12(.17)	.497	-.15(.18)	.421
부모가치관 × 정서적 결속					.04(.04)	.240
R <sup>2</sup>	.073		.073		.074	

\*\* p < .01 \*\*\* p < .001

##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미혼청년 및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대한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유무를 살펴보면,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이 145명(82.9%), 결혼의향이 없는 사람이 30명(17.1%)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의향 정도의 평균은 6.80점으로 나타났다. 미혼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 유무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수입에 따른 결혼의향 유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서 결혼의향 유무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비정규직인 사람이 정규직인 사람보다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정규직인 사람이 비정규직인 사람보다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둘째, 미혼청년 및 부모의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의향 유무에 대한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미혼청년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성평등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성평등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의향 정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미혼청년의 성평등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이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정도도 높아졌는데 반해, 미혼청년의 성평등 가치관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대한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

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결혼의향 유무에 대한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적 결속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이 높을 때, 미혼청년이 부모와의 사회적 결속이 높다면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유무를 살펴본 결과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결혼의향이 없는 사람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혼의향 정도의 평균은 6.8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점을 기준으로 중간점(5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혼의향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단순히 결혼의향을 ‘있다’, ‘없다’의 이분법적인 측정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권소영 외, 2017)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혼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 유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결혼의향 유무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비정규직인 사람이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정규직인 사람은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의 고용지위가 높은 경우 결혼의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권소영 외, 2017; 한영선, 2015), 또한 남성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다고 밝혔다(권소영 외, 2017).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정규직이라는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이 결혼을 선택하는데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결혼의향에 대한 미혼청년 및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만이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p < .10$ ).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즉, 부모가 결혼 없이도 동거나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미혼청년의 결혼의향 정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미혼청년이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즉, 결혼 없이도 동거나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의향 유무와 결혼의향 정도라는 개념적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일수 있지만, 결혼의향에 부적 영향을 주었는지 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본다면 그 결과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나 미

미혼청년과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영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미혼청년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영향은, 결혼이라는 제도 없이도 동거나 출산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갖는 경우 결혼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 결혼의향에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영향은, 부모가 결혼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 미혼청년에게 결혼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낮으며, 이에 따라 미혼청년은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결혼의향의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영향은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미혼청년과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혼청년과 부모의 가족가치관 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혼청년이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부모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미혼청년의 가족가치관의 영향으로는, 결혼의향 유무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의 가치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의향 정도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치관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결혼의향 유무와 결혼의향 정도에 모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통적 가치관에서 개방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면서 미혼청년들의 결혼유보 현상이 증가하였다는 상황에 빗대어 보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보다는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경우 결혼의향에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혼전 성관계나 동거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결혼의향이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문선희, 2012; 임선영 & 박주희, 2014)와, 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부정적이라는 결과(김은정, 2018; 임선영 & 박주희, 2014; 조진영, 2016), 그리고 결혼 보다는 자신의 성취를 지향하고, 결혼을 구속이라고 생각할수록 결혼의향이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김은정, 2018)와 일치하였다.

셋째, 결혼의향에 대한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결혼의향 유무에 대한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적 결속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높을 때, 부모와의 교류(대면, 전화, 메시지) 정도가 많다면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부모와의 교류가 많을수록 부

모의 가치관에 더 영향을 받아 미혼청년도 결혼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혼의향에 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러한 결과는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 및 반응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모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 관계는 어떠한지에 따라서 부모 가치관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결론을 종합하여 보면, 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결혼 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중요하고, 결혼은 구속이라고 생각할수록 결혼의향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높아진 성평등 의식과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잔재해 있는 불평등과의 격차로 인해 결혼의향을 낮아지게 하고, 결혼 후 생활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사회 속에 잔재해 있는 남녀불평등, 성역할 구분 등의 의식 및 제도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청년들이 결혼 후 생활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혼의 간접경험이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미혼청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 모습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미혼청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결혼의 모습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고, 그런 요소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부모의 가치관이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주는 영향은 접촉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혼청년의 결혼과 관련한 정책에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분석 대상 미혼청년은 185명이며, 연령대가 20대에 치중되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세대 간 결속도를 Bengston이 제안한 결속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 척도의 타당화 작업과 한국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척도의 개발이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보다 넓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먼저 미혼

청년의 결혼의향에 대한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미혼청년관련 특성의 영향을 주로 살펴보았으며, 부모관련 특성으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나 지원제공여부 등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가치관은 부모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점에서 부모의 가족가치관을 부모에게 직접 물어 분석한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부모-자녀 쌍 자료를 활용하여 미혼청년의 가족가치관 뿐 아니라 부모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결속도라는 관계의 질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미혼청년의 결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가족관련 중재방안을 탐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유진 (2017). 성인남녀의 비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 학회지, 28(2), 241-256.
- 강은영, 진미정, 옥선화 (2010).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48(2), 135-144.
- 고정자 (2004). 가족개념인식과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12, 5-17.
- 곽민주, 이희숙 (2014). 배우자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의 효과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7(2), 65-94.
- 권소영, 강시은, 엄세원, 박지수, 이재림 (2017). 청년 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세대관계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21(4), 3-25.
- 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 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36(10), 145-160.
- 김도희 (2012). 청년 1인가구 증가 요인에 따른 생활실태분석과 정부의 정책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9), 1-27.
- 김수진, 김세희, 신지니, 엄태호, 장혜린, 진종훈 (2018). 여가라이프스타일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 427-427.
- 김은정 (2018). 미혼여성의 일반적 특성, 결혼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9(4), 1291-1306.
- 김중백 (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 연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39(1), 1-24.
- 김지유 (2018).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여부와 부모와의 동거유형에 따른 영향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 197-197.
- 김지유, 조희선 (2014). 대학생의 이성 관련태도 및 결혼가치관과 결혼이미지가 결혼기대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19(2), 123-143.
- 김지유, 조희선 (2018). 성인 비혼 남녀의 비혼 유형 관련 요인 탐색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23(3), 201-228.



- 김태한, 조성희 (2018). 한국가족치료학회원과 일반인의 가족 가치관 비교. 한국가족치료학회, 26(4), 681-708.
- 김혜영 (2005). 가족의식의 세대적 특성. 한국가족학회, 17(1), 115-146.
- 김혜영 (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5(2), 255-292.
- 김혜영, 선보영 (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35.
- 노혜진 (2018).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8(2), 71-102.
- 류정현 (2007).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가족주의, 효. 부모교육연구, 4(2), 81-94.
- 문경숙 (2006). Harris의 집단 사회화 이론(group socialization theory)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 주는 시사점.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4, 193-211.
- 문선희 (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5-25.
- 박기남 (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27(1), 1-39.
- 박소진, 김노을, 임승지, 김지만, 정우진 (2018). 기혼여성의 우울감과 가족가치관의 관련성 연구: 제4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12) 자료분석. 한국보건행정학회, 28(2), 151-161.
- 박수민 (2017). 비혼을 통해 본 결혼의 탈제도화와 문화적 영향력의 지속. 가족과 문화, 29(4), 94-121.
- 배병렬 (1994). 행동의도 모형의 검토: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적 행동이론.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4·25(1994), 97-115.
- 백수진 (2009). 가부장제와 한국의 저출산 문제. 여성연구논집, 20, 121-156.
- 백주희 (2009).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 국제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27(3), 239-252.
- 손승영, 김은정 (2010). 여대생의 가족 가치관을 통해 살펴 본 저출산 문제의 이해: 성별, 세대별 하위집단 간 가족 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4(4), 169-200.
- 손승영 (2006).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 지속과 변화-. 한국사회역사학회, 2019(2), 245-274.

- 양옥경 (2004).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분석: 정책에 내재된 가족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화사회복지연구, 5, 1-42.
- 어성연, 조희금, 고선강 (2010). 전문직 미혼 남녀의 만혼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19.
- 옥선화, 진미정 (2011).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의 세대 비교: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49(4), 67-76.
- 우민희, 이명진, 최셋별 (2015). 청년세대 일인가구의 여가활동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 다인가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16(1), 201-231.
- 유계숙, 강민지, 윤지은 (2018). 청년층의 가족개념과 가치관. 한국가족학회, 30(3), 42-69.
- 유종열 (2012). 초·중등 학생의 가족 가치관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51(3), 15-33.
- 윤자영 (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159-184.
- 은기수 (2004). 한국인의 가족가치. 한국학중앙연구원, 27(3), 137-182.
- 이경숙, 정성진 (2006). 성인의 양성평등 의식, 생의 의미 및 우울간의 관계. 한국 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15(1), 14-21.
- 이경희, 김상미 (2002). 가족제도(家族制度)로서의 호주제도(戶主制度). 사회과학연구, 11, 159-174.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형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2), 95-140.
- 이순미 (2016). 비혼 청년층의 가족의식에 나타난 가족주의의 변형과 젠더 차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0(3), 1-30.
- 이윤애 (2013). 미혼과 비혼의 차이. 열린전북, 159, 31-33.
- 이윤주 (2017). 연령, 시기, 코호트로 본 1998-2014년까지의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 5, 57-62.
- 이재경, 김보화 (2015). 2, 30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 한국여성학회, 31(4), 41-85.
- 이정하, 박정윤, 윤나나 (2017).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탐색을

- 위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23(2), 183-214.
- 이진숙, 최원석 (2012).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계획 경로에 관한 연구 - 성역할태도, 일가족양립갈등, 결혼행복감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3(4), 5-30.
- 이창순 (2012). 한국사회 비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과학연구, 38(3), 49-71.
- 이희연, 노승철, 최은영 (2011). 1인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 46(4), 480-500.
- 임선영, 박주희 (2014).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 요소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77-193.
- 임훈민, 김중백 (2013). 취업이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36(3), 45-67.
- 저윤평 (2014). 한·중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대한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67-73.
- 전귀연, 박혜민 (2017). 미혼남녀의 정서적·당위적·기능적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2017(0), 200-201.
- 정성호 (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161-183.
- 정현주, 박가인 (2015). 일/가정 가치관 유형에 따른 출산 장려 광고 메시지에 대한 인식 차이: 선호이론을 기초로. 한국광고PR실학회, 8(1), 7-37.
- 정혜은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아동가족학과 2008.2.
- 정혜은, 진미정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31(1), 151-168.
- 정호범 (2013).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동기와 태도. 사회과교육연구, 20(1), 121-135.
- 조진영 (2016). 30대 미혼성인의 가족주의 가치관, 부모관계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13(1), 59-86.
- 진미정, 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 영향 추세 연구 :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최새은, 옥선화 (2003).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8(1), 53-73.
- 최필선, 민인식 (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회*, 38(2), 57-83.
- 최효미 (2017). 청년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17(5), 49-55.
- 호정화 (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한국인구학*, 37(4), 25-59.
-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44(9), 1175 - 1184.
- Denham, S.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Guilford Press.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 Addison-Wesley.
- Hakim, C. (2000). *Work-lifestyle choices in the 21st century : preference theor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Hakim, C. (2006). Women, careers, and work-life preferenc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4(3), 279-294.
- Jennings, A.M., Salts, C.J. & Smith, T.A. (1991). Attitudes toward marriage: effects of parental conflict, family structure and gender.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7, 67-80.
- Riggio, H.R. & Weiser, D.A. (2008). Attitudes toward marriage: Embeddedness and outcomes in personal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15(1), 123-140.
- Sodermans, A.K., Bastaits, K., Vanassche, S., Matthijs, K. & Peer, C.V. (2008). The influence of family type and parental conflict o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s marriage and divorce: the role of family integ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meeting of the European Network for the Sociological and Demographic study of Divorce. Oslo (Norway), 18-19 September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family values of unmarried  
young adults on marital intentions  
: Focus on the Interaction of parental family values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ae-Shil Yun**

Department of Human Ecology & Welfar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ooHong Min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rapid social changes, and the percentage of unmarried young adults putting off or not choosing marriage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In Korea relatively, marriage and childbirth are closely related, thus, a high percentage on marriage intention may lead to low birth rate, which is major concern in South Korea.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pointed out that single-person households showed the weakening social network, ties, compared to non single-person households. Thus, it is important to examine marriage intentions among young adults and what factors affect their intention to marry. Previous studies analyzed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occupational and economic situations,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unmarried young adults's intention to marry, but lack of research have been examined parent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modeling theory and the emotional socialization theory, one can think of the fact that parent' values can affect

the attitudes, values, and behaviors of unmarried young adults. And that the children's values and behaviors are affected by monitoring and reacting to their parent's behavior, so affect of parental value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frequency of contact and relationships. Although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parent-related characteristics, such as parent support provision, cohabitation, emotional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rearing attitude of parent, few studies have explored the effects of parental family values and interaction effects among those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on unmarried young adults marital intention and to examine the interaction of parental family values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on unmarried young adults's marital intention.

The study surveyed unmarried young adults aged 20 to 40 living on Jeju Island from September 11, 2019 to October 31, 2019. A total of 566(283 pairs) of surveys were distributed and a total of 396(198 pairs) were used. We excluded 38(19 pairs) that were poorly recorde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unmarried young adults with marital intention was 145(82.9%) and 30(17.1%) with no intention of marriage, and the average of degree of marital intention was 6.80. First, the family valu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marriage intentions(e.g. probability and degress) among young adults. Specifically, the higher values of marriage system, gender equality values, and familism values among unmarried young adult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lower probability to repond that they have marriage intentions. In terms of degree of intent to marry, the higher the value gender equality and familism value of unmarried young adults were related to the lower degree of intent to marry. The effect of parents' family values on marital inten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an analysis of the interaction effects of parental family values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on the marital intention in unmarried young ad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parents' marriage system value

and associational solidarity on whether or not the intention to marry. When parents have high values for the marriage system, the unmarried young adults has a higher chance of responding that there is a higher chance of responding that they have a desire to marry if their associational solidarity is high.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the higher the sense of gender equality, the more important I am to achieve myself, and the more I think of marriage as a restraint, the more negative it is to marry. 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consciousness and institutions of gender inequality and gender discrimination that still remain in society. Also, unmarried young adults who have never experienced marriage consider the post-marriage life the redemption,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the indirect experience of marriage was negative.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negative aspects of marriages that are indirectly experienced by unmarried young adults, the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parental marriages that are indirectly experienced by unmarried young adults and to improve such factors. In addition, parental family values on marital intention may influenced by the degree of intergenerational cont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lationship with parents regarding making policies for marriage intentions among unmarried young adults.

As values are influenced and may shaped by parents, there is a need to look at the effects of parents' values. The study looked at the effect of parents' family values on the marital intention of unmarried young adults. In addition, this study utilized dyadic data of young adults and their parents, examining interaction effect of the family value of parents and the solidar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the marriage of unmarried young adults and exploring family-related interventions.

Key words : unmarried young adults, parent, marital intentions, family valu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teraction

# 부 록



● 청년남녀용 설문지

ID:  -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석사논문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실시되는 설문조사이며, 논문의 주제는 “미혼청년남녀의 가족가치관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입니다. 청년남녀의 결혼 의향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설문조사의 응답을 요청 드립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설문지는 석사논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 및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응답은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청년들의 비혼과 관련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는 향후 관련 정책 개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조사에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 월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석사과정 윤태실(010-2246-2455), 지도교수 민주홍

**I****일반적 특성****성별**

문1 귀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문2 귀하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월

**최종학력**

문3 귀하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석사 졸업  
 ⑤ 대학원-박사 졸업                                      ⑥ 기타(\_\_\_\_\_)

**학적상태**

문4 귀하 현재 학교를 다니고 계십니까?

- ① 다니고 있다                      ② 다니지 않는다 (\_\_\_\_\_ )에 다니는 중  
 ❖ 학교를 다니고 계시다면 선택지에서 해당하는 것을 괄호에 작성바랍니다.  
**선택지** (1)대학교-학사, (2)대학원-석사, (3) 대학원 박사)

**취업여부**

문5 귀하 현재 취업 중이십니까?

- ① 그렇다                      → 문8로 가십시오.  
 ② 아니다                      → 문6, 문7로 가십시오.

**미취업 상태인 이유**

문6 귀하가 현재 취업 중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 준비 중                      ② 학업 때문에                      ③ 취업 계획이 없음  
 ④ 건강상의 이유로                      ⑤ 기타(\_\_\_\_\_)

**생활비**

문7 귀하가 현재 취업 중이 아니라면 생활비는 어떤 경로로 얻고 계십니까?

- ① 아르바이트                      ② 용돈                      ③ 장학금                      ④ 대출                      ⑤ 기타(\_\_\_\_\_)  
 ❖ 중복이 된다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상 지위**

문8 귀하가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서 종사상의 지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영업자                      ② 임시직                      ③ 무급 가족종사자  
 ④ 일용직                      ⑤ 상용직(정규직)                      ⑥ 기타(\_\_\_\_\_)

**수입**

문9 귀하의 현재 월수입이 어떻게 되십니까?

-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⑧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⑨ 400만원 이상  
 ❖ 취업 중이 아니라면 생활비 형태로 한 달에 받는 비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II 결혼의향**

**결혼의향 여부**

문1 귀하는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

**결혼의향 정도**

문2 10점을 만점으로, 귀하의 결혼 의향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10점에 가까워질수록 결혼의향이 높음

**III 가족가치관**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재산을 딸, 아들 구별 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①	②	③	④	⑤
(8)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는 남자가, 요리, 빨래, 청소는 여자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1) 명절 때, 장거리 운전과 성묘는 남자가 하고, 차례상 음식마련은 여자가 하는 것이 공평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일과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가족결속도**

※ 다음 문항들에 대해서는 부모님 중 한 분을 기준으로 생각하여 응답해주시오.

**응답기준**

문1 아래의 문항들에 대해서 부모님 중 어느 분을 기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동거여부**

문2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점속 빈도	
<b>문1</b>	귀하는 얼마나 자주 부모님과 만나십니까?
① 거의 매일 또는 매일	② 거의 매주 혹은 매주
③ 거의 매달 혹은 매달	④ 1년에 여러 번
⑤ 1년에 1~2회	⑥ 거의 혹은 전혀 만나지 않음
<b>문2</b>	귀하는 얼마나 자주 부모님과 통화하십니까?
① 거의 매일 또는 매일	② 거의 매주 혹은 매주
③ 거의 매달 혹은 매달	④ 1년에 여러 번
⑤ 1년에 1~2회	⑥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음
<b>문3</b>	귀하는 얼마나 자주 부모님과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등)를 주고받으십니까?
① 거의 매일 또는 매일	② 거의 매주 혹은 매주
③ 거의 매달 혹은 매달	④ 1년에 여러 번
⑤ 1년에 1~2회	⑥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음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해당되는 내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귀하와 귀하의 부모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가깝지 않음 ← ① ② ③ ④ ⑤ ⑥ → 매우 가깝음
2.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 귀하의 삶에서 귀하와 부모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 긴장감 또는 의견충돌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없음 ← ① ② ③ ④ ⑤ ⑥ → 매우 많음
3. 현 시점에서 귀하의 삶에서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 사이 소통(의견을 교환하거나 걱정에 대해 이야기 함)은 어떠합니까?	전혀 하지 않음 ← ① ② ③ ④ ⑤ ⑥ → 매우 많이 함
4. 귀하는 부모님이 귀하 혹은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이라고 느끼십니까?	전혀 비판적이지 않음 ← ① ② ③ ④ ⑤ ⑥ → 매우 비판적임
5. 현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나 가치관은 부모님의 의견이나 가치관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음 ← ① ② ③ ④ ⑤ ⑥ → 매우 비슷함
6. 부모님은 귀하와 얼마나 논쟁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음 ← ① ② ③ ④ ⑤ ⑥ → 매우 많이 함
7. 현 시점에서 귀하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부모님과 얼마나 잘 지내십니까?	전혀 잘 지내지 않음 ← ① ② ③ ④ ⑤ ⑥ → 매우 잘 지냄
8. 귀하가 부모님을 얼마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해하지 않음 ← ① ② ③ ④ ⑤ ⑥ → 매우 잘 이해함
9. 부모님은 귀하를 얼마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해하지 않음 ← ① ② ③ ④ ⑤ ⑥ → 매우 잘 이해함

아래에 열거 된 각 유형의 지원에 관해서 지난 1년 동안 귀하와 부모님이 주고받는 것을 아래의 상자에 체크하십시오.

유형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린 적 있다.		부모님에게서 도움을 받은 적 있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정서적 지원 예) 삶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대화/조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도구적 지원 예) 설거지, 장보기, 병원 가기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경제적 지원 예) 용돈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모용 설문지

ID:  -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석사논문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실시되는 설문조사이며, 논문의 주제는 “미혼청년남녀의 가족가치관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가족가치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입니다. 청년남녀의 결혼 의향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설문조사의 응답을 요청 드립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설문지는 석사논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 및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응답은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청년들의 비혼과 관련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는 향후 관련 정책 개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조사에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 월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석사과정 윤태실(010-2246-2455), 지도교수 민주홍

## I

## 일반적 특성

## 성별

문1 귀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 연령

문2 귀하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월

## 최종학력

문3 귀하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석사 졸업  
 ⑤ 대학원-박사 졸업                                        ⑥ 기타(\_\_\_\_\_)

## 종사상 지위

문4 귀하가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서 종사상의 지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직                      ② 자영업자                      ③ 임시직                      ④ 무급 가족종사자  
 ⑤ 일용직                      ⑥ 상용직(정규직)                      ⑦ 기타(\_\_\_\_\_)

## 수입

문5 귀하의 현재 월수입이 어떻게 되십니까?

-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⑧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⑨ 400만원 이상

❖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귀하의 가구의 한 달 수입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II 가족가치관**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재산을 딸, 아들 구별 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①	②	③	④	⑤
(8)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기는 남자가, 요리, 빨래, 청소는 여자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1) 명절 때, 장거리 운전과 성묘는 남자가 하고, 차례상 음식마련은 여자가 하는 것이 공평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일과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가족결속도**

※ 다음 문항들에 대해서는, 귀하를 기준으로 생각하여 설문에 응답한 자녀를 생각하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첫째 딸이 귀하를 기준으로 생각하여 ‘청년남녀용 설문지’에 응답하였다면, 아래 문항들은 ‘첫째 딸’을 기준으로 생각하여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녀**

문1 귀하 자녀는 몇 명이십니까?  
 \_\_\_\_\_ 남 \_\_\_\_\_ 녀

❖ “1남 1녀” 혹은 “1남” 혹은 “1녀”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동거여부**

문2 귀하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접속 빈도	
<b>문1</b>	귀하는 얼마나 자주 자녀와 만나십니까?
① 거의 매일 또는 매일	② 거의 매주 혹은 매주
③ 거의 매달 혹은 매달	④ 1년에 여러 번
⑤ 1년에 1~2회	⑥ 거의 혹은 전혀 만나지 않음
<b>문2</b>	귀하는 얼마나 자주 자녀와 통화하십니까?
① 거의 매일 또는 매일	② 거의 매주 혹은 매주
③ 거의 매달 혹은 매달	④ 1년에 여러 번
⑤ 1년에 1~2회	⑥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음
<b>문3</b>	귀하는 얼마나 자주 자녀와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등)를 주고받으십니까?
① 거의 매일 또는 매일	② 거의 매주 혹은 매주
③ 거의 매달 혹은 매달	④ 1년에 여러 번
⑤ 1년에 1~2회	⑥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음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해당되는 내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귀하와 귀하의 자녀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가깝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가깝음
2.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 귀하의 삶에서 귀하와 자녀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 긴장감 또는 의견충돌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많음
3. 현 시점에 귀하의 삶에서 귀하와 귀하의 자녀 사이 소통(의견을 교환하거나 걱정에 대해 이야기 함)은 어떠합니까?	전혀 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많이 함
4. 귀하는 자녀 혹은 자녀가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이라고 느끼십니까?	전혀 비판적이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비판적임
5. 현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나 가치관은 자녀의 의견이나 가치관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비슷함
6. 귀하는 자녀와 얼마나 논쟁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많이 함
7. 현 시점에 귀하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자녀와 얼마나 잘 지내십니까?	전혀 잘 지내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잘 지냄
8. 자녀가 귀하를 얼마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해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잘 이해함
9. 귀하는 자녀를 얼마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해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잘 이해함

아래에 열거 된 각 유형의 지원에 관해서 지난 1년 동안 귀하와 자녀가 주고받는 것을 아래의 상자에 체크하십시오.

유형	자녀에게서 도움을 받은 적 있다.		자녀에게 도움을 준 적 있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정서적 지원 예) 삶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대화/조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도구적 지원 예) 설거지, 장보기, 병원 가기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경제적 지원 예) 용돈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